

AI

&

EDITOR KIM JISEON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가장 유능하고도 위협적인 파트너는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 AI와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4명의 창작자가 AI와 협업한 경험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Matthew Stone, 'Combined Effort II', 2018, digital print on linen, 250 x 160cm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하는 예술가 매튜 스톤(Matthew Stone)의 디지털 페인팅 작품.

ME

Courtesy of CHOI&CHOI Gallery and the artist

AI와 소설 쓰기

2023년 봄에 출간된, 미국 출신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스티븐 마르세가 AI 툴인 챗GPT, 수도라이트(Sudowrite), 코히어(Cohere)를 활용해 쓴 살인 미스터리 소설의 제목은 <작가의 죽음(Death of an Author)>이다. 스티븐 마르세는 이 소설을 발표할 때 에이든 머신(Aidan Marchine)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 'Marchine'은 아마도 '기계'를 뜻하는 'machine'에서 따왔을 것이다. AI에게 줄거리와 등장인물, 문장과 플롯 등을 거의 전적으로 맡긴 살인 미스터리 소설의 제목을 고약하게도 '작가의 죽음'이라고 단 것은 AI의 등장과 진화를 바라보는 소설가들의 감정 중 한 가지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공포, 실제로 챗GPT, 수도라이트, 코히어 같은 AI는 프랑스대혁명 시기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을 잘랐던 단두대처럼 소설가들에게 한 시대의 종말을 폭력적으로 선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얼마 전 나는 화성에 최초로 정착한 인류를 다룬 장편소설의 1차 퇴고를 끝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것은 화성을 배경으로 서부극을 차용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소설가마다 작업 순서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새로운 소설을 쓸 때 나는 가장 먼저 비슷한 소재를 다룬 소설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본다. 관행대로(?) 하자면 구글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돌려가며 검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챗GPT를 열었다(얼마나 열렬한 공포를 선사하려나).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해 이렇게 물었다(영작과 번역 역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인 딥플(DeepL)을 사용했다. 영어를 쓴 이유는 그쪽 데이터가 더 방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나올 대화들은 모두 챗GPT와 실제로 나는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축약한 것이다.

“화성을 배경으로 한 서부극이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식을 업데이트한 2022년 1월 기준으로 화성을 배경으로 한 서양 영화나 TV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역동적이며 새로운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챗GPT가 '영화와 TV 프로그램'만 언급해 나는 질문을 더 이어갔다.
“소설 중에도 없나요?”

“2022년 1월까지 제 정보에 따르면, 화성을 배경으로 하는 서양식 서부물 소설이나 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선점 여부는(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기분은 괜찮았다) 확인이 됐다. 이어 소설 설정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다. 서부극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소품들은 말과 총, 카우보이 복장 등이다. 나는 화성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화성에서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은 무엇인가요?”

“주로 로버(Rover)와 탐사선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용 로켓, 화성 기

지간 우주선, 마그레브 기술(Magnetic Levitation, Maglev)을 활용한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그레브 기술을 이용해 화성 표면에서 이동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마그레브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설명해주세요.”

“마그레브 기술은 전자기장을 이용해 차량을 부유하게 하고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지상에 있는 사물은 부드럽게 떠 있는 상태로 유지되며, 마그네틱 상호작용을 통해 접촉 없이 움직입니다.”

이 대화를 끝낸 후 내가 떠올린 장면은 승객들을 실은 채 화성 표면을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와 개인용 로켓을 타고 이를 뒤쫓는 열차 강도들의 모습이었다. 문과 출신 소설가가 SF 소설에 등장하는 설정의 타당성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채 줄거리를 짜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인데(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챗GPT와 대화를 이어간다면 큰 고민거리 하나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질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화성에서 권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성을 배경으로 한 서부극에서 등장인물들이 주로 입을 법한 복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성을 배경으로 한 서부극에 어울리는 등장인물들은 누가 있을까요?” 등등. 물리법칙, 개연성, 장르 법칙을 고려한 답변이 제법 세세하게 나왔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모두 공포로 환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몇 가지 질문은 끝내 할 수 없었다. “귀신 따윈 없어!”라고 소리쳤는데 진짜 귀신이 튀어나와 화들짝 놀라게 될까 봐.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 말이다.

“기존 서부극을 변용해 몇 가지 줄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위 줄거리를 가진 서부극의 결말을 세계적인 작가 중 한 사람의 문체를 활용해 써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버지니아 울프 같은?”

AI와 소설의 관계를 논할 때 자주 호출되는 작가가 있다. 백과사전식 소설을 썼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문학은 없다. 모든 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텍스트다.” 챗GPT가 하는 일도 간략히 설명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상호 참조와 요약일 텐데, 소설가들의 숨이 끝막 넘어가기 전 챗GPT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요구는 이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오늘 한 답변을 저만 알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김기창(소설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저자)

AI와 번역하기

아마도 많은 이들이 장안의 화제로 등장한 챗GPT에 처음 접속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SNS에서 많은 사람이 챗GPT에 입력한 질문과 답을 게시하며 놀라고 신기해하고 감탄하기에 바빴다. 워낙 기계적이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큰 관심이 없는 데다 AI로 인해 사라질 직업 1위에 거론되곤 하는 번역가인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를 억지

로 만나야 할 때처럼, 최대한 미루다 겨우 검색창에 챗GPT를 쳐보고 초록색과 보라색의 낯선 화면 위에서 이메일을 입력하다 화들짝 놀라 나와 버렸다. 얼마 후 한 과학책 번역가에게 답플 번역기의 훌륭한 성능에 대해 들었지만 애써 눈을 돌렸다. 너무 어색해서 코웃음만 나오는 다른 번역가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번역이란 방망이 쥐는 노인 같은 장인정신과 예술가적 상상력과 문장력으로 완성되는 작업이라는 믿음에 자부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다 한 관공서의 설문조사 번역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반 정도 번역하다 답플 번역기에 넣어보았다. 생각보다 정확하고 문장 구조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잘 읽히지 않았다. 내 번역이 훨씬 더 한국어답고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잖아. 역시 ‘무식하게’ 한 단어,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하고 번역하는 게 옳아”라고 결론을 내버렸다. 그러나 최근에 문학 에세이 번역을 하면서 AI 세계와 제대로 접촉하게 되었다. 편리하고 기능적인 툴로서 AI 활용법을 익히게 된 것이다. 이 답플이란 녀석은 기본적으로 똑똑하지만 고지식했고, 매사에 노력은 하지만 서툴렀다. 자기가 모르는 건 몽둥그리거나 원문 그대로 적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모습이 귀엽기도 한데 가끔은 쓸쓸한 아이디어를 내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조수로 삼을 만한 신참 번역가였다. 나의 경우 내가 먼저 번역을 해놓고 이 친구의 번역에 쓰인 단어나 표현을 참고하거나 오역을 손본다. 그래도 조수는 사수를 따라오기에는 한참 멀었으니 그나마 가장 낫다는 AI 번역과 인간의 번역을 비교해보자.

답플 “한번 저를 친구로 받아들이면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의리였죠.”
 나 “그녀는 의리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다. 한번 친구면 영원히 친구였다.”
답플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뇌진탕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죽음은 결코 극복할 수 없지만 이제 고통은 강장제 기복과 섞여 있었다.”
 나 “그가 떠난 후 처음으로 내 안에 고통처럼 고여 있던 고통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고통 또한 토닉을 탄 진액처럼 열어질 수는 있었다.”
 이럴 때면 번역은 공감력과 상상력이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인간이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AI가 번역은 아직 서툴러도 정보 제공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책에는 로데오 경기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번역하며 마치 미국인이 탈출 추는 법이나 장구의 구조에 대해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무엇보다 ‘chute’라는 단어에서 한참을 헤맸다. 말이나 소가 경기장으로 나가기 전 대기하는 장소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슈트’라고 적고 역주를 달아줄까 망설이고 있었다. 그런데 챗GPT에 “로데오에서 ‘chute’가 뭐야?”라고 물으니 바로 “출발 게이트”라는 딱 들어맞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닌가. 가끔 스스로를 전문 번역가가 아니라 전문 검색가라 칭하기도 할 만큼 번역은 검색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작업이다. 확실히 AI가 단어 찾



Matthew Stone, 'Freedom/Optimism', 2016, digital print and acrylic on linen, 120x90cm

기와 검색에 드는 시간은 줄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종 정보와 인명 검색, 수수께끼 같은 문화적 차이를 밝혀내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아껴 문장을 다듬고 더 적확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찾아보며 원어의 뉘앙스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AI의 발전이 번역가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번역가를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고 (아직은) 생각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번역가는 연기자라고 생각한다. 새 책과 새로운 저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변신할 준비를 한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 인물이 가득한 낯선 세계에 내 몸과 마음을 풍덩 담근다. 나는 1970년대 와이오밍에서 양을 치는 여인이 되고, 1950년대 뉴욕의 젊은 작가가 되고, 2000년대생 열혈 페미니스트가 되기도 한다. 번역할 때마다 내 문체는 물론 말투까지 바뀌고 사고와 감정 또한 미세하게 달라진다. 저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읽고 말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영국인이지만 이탈리아어로 글을 쓰고 번역하는 줌파 라히리의 <나와 타인을 번역한다는 것>에서 번역은 “문을 열고, 다르게 보려고, 나 자신을 다른 존재에 접목해보려고” 하는 것이라 말한다. 매번 나 자신을 다른 존재에 접목하는 것이 직업인 번역가에게 AI와의 접목 정도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신문물에 대한 나의 수용력과 적응력에 대해 자신감까지 얻었으니 이는 번역 작업이나 글쓰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노지영(번역가, <트릭 미라> 역자)

AI와 카피 쓰기

나는 이번 원고 청탁이 오기 전까지 챗GPT를 써보지 않았다. 궁금하긴 했지만 반신반의했달까? 반신반의에서 반은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추후 잘할 것 같은 일 중 하나로 카피라이팅을 꼽았다. 한 브랜드의 텍스트를 총괄하는 일을 했고, 퇴사 후에도 여러 회사와 함께 프리랜스 카피라이팅 작업을 하는 나로서 움찔하는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감이었다. 나는 뭔가 두려우면 부딪혀서 이겨내기보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쪽이다. 그래서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챗GPT에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 원고를 계기로 마침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챗GPT를 검색하고 한글 버전을 다운받았다. 심플한 초기 화면은 내 취향이었고 “어떤 질문이든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는 웬지 모르게 든든했다. 챗GPT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기에 무작정 “TV를 판매하는 세일즈 카피를 써주세요”라고 입력했다(최근 TV와 관련된 카피라이팅 작업 중이라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다). 3개의 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한 뒤 이런 답이 나왔다. “전문가의 선택, 최고의 시청 경험을 위해 TV를 가져가세요!” 흠... 실망스러웠다. 이번에는 ‘겨울, 코코아’라는 키워드로 카피를 써달라고 했다. 꽤 긴 문장형 카피가 나타났다. “겨울의 따뜻한 날씨와 함께 코코아 한잔 어떠세요? 이번 겨울, 코코아로 따뜻함을 느껴

보세요.” 물론 챗GPT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관련해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도 여럿 출간된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의 결과물을 보자면 당분간 내 밥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장에 비문이 있고 없고를 떠나 도출된 단어만 봐도 상당히 1차원적이란 걸 알 수 있다.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이 정도의 카피가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굳이 챗GPT까지 써야 할 필요는 못 느낄 수준이다.

나는 카피를 쓸 때 최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정서를 많이 드러내려 노력한다. 즉 디테일하고 뽀족한 카피를 쓰고자 한다. 가령 챗GPT에 “줄넘기를 판매하는 세일즈 카피를 써주세요”라고 질문하면 “한 번의 도약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줄넘기로 에너지 충전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같은 답이 도출된다. 이는 디테일이 없는 카피다. 줄넘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살을 빼거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상황일 거라고, 아주 뭉툭하게 단정 짓고 터프하게 쓰는 것이다. 하지만 카피라이터는 좀 더 세심하게 고객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광고 카피는 내 얘기처럼 여겨져야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되면 그냥 지나친다. 줄넘기를 파는 곳은 매우 많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줄넘기를 사려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사이트, 우리 브랜드에서 줄넘기를 사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려면 그들과 다르게 써야 한다. 즉 사람들이 줄넘기를 하는 이유, 운동하려는 이유가 남들이 다 말하는 다이어트나 건강 말고 뭐가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걸 꺼내야 한다. 그건 사람의 사소한 경험 안에 있다. 김혜진 작가의 단편소설 <줄넘기>의 주인공은 헤어진 연인을 찾기 위해 매일 밤 공원에 나가 줄넘기를 한다. 줄넘기는 의외로 그녀를 잊는 데 도움이 됐다. 제자리에서 반복해서 뛰어야 하기에 그녀의 집에 찾아갈 수 없었고 줄을 잡고 있느라 전화도 걸 수 없었다. 그래, 헤어진 사람을 찾기 위해 줄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의 흐름으로 아래와 같은 카피를 써볼 수도 있다.

“제자리에서 그녀를 잊는 방법,

더 나은 내가 되기로 한 순간 그녀는 잊혔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얼마 전 드라마 작가들을 인터뷰한 잡지를 읽는데 정서경 작가가 워킹패드 위를 걸으면서 엄마에서 글 쓰는 사람으로 모드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나도 작가이자 엄마, 아내 이기에 이 모드 전환 사례에 크게 공감아 됐다. 자, 그럼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서 워킹패드를 팔아보자. 홈쇼핑 채널에서 워킹패드나 러닝머신을 팔 때도 대부분 운동이나 다이어트로만 접근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워킹 패드를 공략하며 생각 정리나 모드 전환이 필요할 때 밖으로 걸어나갈 수 없다면 워킹패드를 걸으라고 말하면 어떨까? 하도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은 다이어트 이야기보다는 솔깃할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한 경험을 살려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은 차별화가 되고 다음에 또

와보고 싶은 채널로 각인된다. 그렇게 팬이 생기는 것이다.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당분간 챗GPT는 개인의 이런 디테일한 경험과 정서를 살린 카피는 쓰지 못할 것 같다. 챗GPT는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딱 맞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카피만을 쓴다. 고정관념 덩어리다. 점점 더 예리하고 세심해지는 고객들은 이런 카피에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눈에 띄는 카피는 어떻게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카피여야 한다.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카피는 진짜 그런 경험을 해 봤거나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간접경험을 살려야만 쓸 수 있다. 같은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누가 어떤 카피로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개인의 경험과 느낌, 기분은 그만큼 중요하다. 카피라이터나 마케터 혹은 카피를 써야 하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경험이냐 느낌을 나만이 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메모하며 응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나만의 경험이 막연히 두려운 AI 시대에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유미 (카피라이터·작가, <편애하는 문장들> 저자)

AI와 관계 맺기

나의 꿈은 내 시간을 스스로 제어하며 사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내 템포대로 산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척 어렵다. 가령 방송기자로 일하던 시기에는 데스크를 기다리는 일이 무척 고됐다. 데스크를 담당할 부장급 기자는 한 명인데, 그날 밤 뉴스 전까지 처리되어야 할 기사는 너무 많았다. 콘텐츠 특성상 데스크를 미리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대충 보고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데스크의 병목현상은 그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모두가 이것도 제작 과정의 하나라 여겼다. 내가 상황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무척 답답했다.

이러한 과정을 해소하려면 기사를 빨리 쓰는 제작 과정을 단축하든 해야 했다. 의사결정 과정을 앞당기기 힘들다면 완성도 높은 제작물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편이 더 나았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기사를 빠르게 생성하는 '로봇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쪽으로 커리어를 바꿨다. 그것이 2015년 한여름의 일이다. 8년여가 지난 지금은 AI 기술을 활용해 기사뿐 아니라 소설도 쓸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편집과 운문, 팩트 체크도 할 수 있으며 독자들의 예상 반응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세상이 놀라운 속도로 바뀌었다.

이제는 내가 기술을 써서 상황을 제어할 수 있고, 나의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내 시간의 주도권을 가져온 만큼, 내 책임도 더 커졌다. 방송 기사 하나를 만드는 데 동원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책임을 나눠 짊어지던 시절은 끝이 나고, 그들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얹힌다. 방송 기사만이 아니다. 일상의 많은 일이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뽐뿌 씌우고 있다. 시간적 여유는 가지게 됐는데

책임을 덜어낼 여유는 사라진 것 같다. 여유가 생겨도 뻘뻘한 삶이란 게 이런 것일까.

AI 기술을 나의 어시스턴트로 인정하더라도, 그 관계에서 꼭 내가 우위를 점하는 느낌은 아니다. AI가 워낙 영특한 협력자이다 보니, 내가 도리어 기술에 맞춰주는 기분이 든다. 2019년 구글 번역기가 버트(BERT)라는 언어 모델을 품고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던 때, 당시 공학대학원 연구실의 슬렁이던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공대 대학원생들에게는 국제 학회나 저널에 논문이 발표되는 성과가 무척 중요하다. 비영어권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에게 영어 논문 쓰기는 그야말로 부담감의 끝판왕이었다. 이걸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2019년의 구글 번역기는 너무나 소중한 협업자였다. 대학원생들은 기존에 쓰던 문장 습관을 기꺼이 버려가면서 번역기가 더 잘 번역할 수 있는 형태의 한국어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주어를 앞에 쓰고, 문장을 짧게 쓰고, 복잡문은 쓰지 않았다. 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기술을 위해 내 오랜 글쓰기 습관도 가볍게 놓아줄 수 있었다.

요즘은 필요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 AI와 나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이유가 영어를 대신 구사해주는 기능적 욕구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욕구로도 확대되고 있다. 감정이 꼭 애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존도라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내가 사는 세상 경계 바깥의 이야기가 궁금할 때, 책이나 인터넷 대신 챗봇에게 자연스럽게 묻게 될 미래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 단지 뉴스나 정적인 정보 찾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독일의 30대 여성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케냐의 어린이들은 어떤 과목을 어떠한 이유로 제일 좋아하는지, 20년 만에 동창을 마주치면 어떤 인사가 어울릴지 등등.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창구의 건너편에 AI가 있다.

그런 AI가 나와 더 잘 소통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 또한 기꺼이 그의 문법을 따르지 않을까. AI에 대한 나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AI는 나를 더 잘 학습하게 된다. 의사결정부터 몽상에 이르는 꽤 많은 생각의 파리를 AI에 의존하게 되면서 AI는 나라는 개인을 어느 기술보다도 잘 파악하고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나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기술의 이면을 뜯어보고 비평하고 고쳐가고 있다. AI가 사회적 편향을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에게 역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사용자의 나쁜 의도를 너무 잘 학습하는 바람에 나쁜 AI가 널리 퍼지지는 않을지. 기속 덕분에 나의 시간이 늘어난 것은 달콤한 일이지만 기술은 나의 세계에서 통제권을 잃고 갖은 책임을 뒤집어써 주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아직은 초기 버전인 AI에게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고 걱정을 말하자. AI와 나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 미래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해야 한다.

유재현(벤처 캐피탈리스트, <학습하는 직업> 저자)



디지털 페인팅 작품 'Sleep' 안에 놓여 있는 작은 사이즈의 얼굴 그림 '1400957050'은 매튜 스톤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이다.

Courtesy of CHOI&CHOI Gallery and the artist

전통적인 페인팅과 디지털 기술을 혼합하는 작업을 하는 영국 아티스트 매튜 스톤은 자신의 디지털 프린팅 작품을 활용해 맞춤형 AI 모델을 만들었다. 뉴욕에서 열린 전시 (AI Paintings)에서 그는 대형 LED 스크린에 'Face Zero'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이 스크린은 10초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며, 매튜 스톤의 오리지널 작품 스타일로 만들어진 AI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만약 당신이 홀로 갤러리에 있다면 특정 이미지를 보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컴퓨터가 예술가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예술을 경험하게 한다. 매튜 스톤은 이러한 AI 작품 이미지를 페인팅의 주제로 사용한다. 캔버스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놓고 자신의 시그니처 작품인 인간 아바타 그림을 배치하는 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술을 다루는 예술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 — A